

역삼동 유적 발굴조사개요

박경신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역삼동 유적 발굴조사 개요

박경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I. 머리말

올해는 서울 역삼동 유적을 조사한 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다. 1966년 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던故 매산 김양선 교수의 지도하에故 임병태 교수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이 발굴은 숭실대학교의 최초 발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남다르다. 또한 한국 고고학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태동기에 조사된 역삼동 주거지는 비록 1동의 주거지만 조사되었지만 청동기시대 전기의 문화양상을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현대의 고고학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되고 보고된 점에서 학사적인 의의가 크다. 하나의 예로 보고서상에 수록된 주거지 도면은 평면도 일색이던 고고학 보고서 체계에 새롭게 단면도를 수록한 최초의 도면이 되었다. 그리고 유구 설명과 유물 설명을 분리하고, 유물을 재질별로 나누어 기술함과 동시에 도면과 사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지금의 보고서 체제를 완성하였다. 이 시기까지 고고학 보고서는 중요 유물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보고에 누락된 유물이 많고, 유구의 조사과정 및 기술이 소략하여 전체적인 유물의 출토맥락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도면과 사진이 소략하게 보고되어 전체적인 유적의 성격을 밝히기 어렵다. 한편 역삼동 주거지가 발굴되면서 소위 ‘역삼동유형’ 내지 ‘역삼동식토기’라는 학술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청동기시대 연구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 유적의 보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 정보가 누락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로 인하여 역삼동 유적의 위치 비정에 큰 혼선을 초래하였고 대략적인 위치에 유적을 알리는 표석이 설치되는 문제점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 결과 행정기관에 따라 유적의 위치 정보가 잘못 안내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표석까지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로 제거되는 수모로 이어졌다. 한국 선사 문화 조사 역사의 시발점이자 청동기시대 생활상을 밝히는 시금석이 되었던 역삼동 유적의 존재가 개발의 논리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요즘 역삼동 유적에 대한 반세기를 돌아보는 자리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역삼동 유적에 대해서는 이미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고고학적 성과에 대하여 다수의 논문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역삼동 유적의 조사 지점에 대한 고증과 당시 행정서류를 정리하여 역삼동 유적의 조사 과정상 흔적을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임 관장인故 임병태 교수가 보고한 내용, 조사 당시 표시하였던 지도, 각종 행정서류, 발굴조사일지 및 정산서류 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초창기 숭실대학교박물관의 고고학 발굴조사 역사를 조사 과정별로 정리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II.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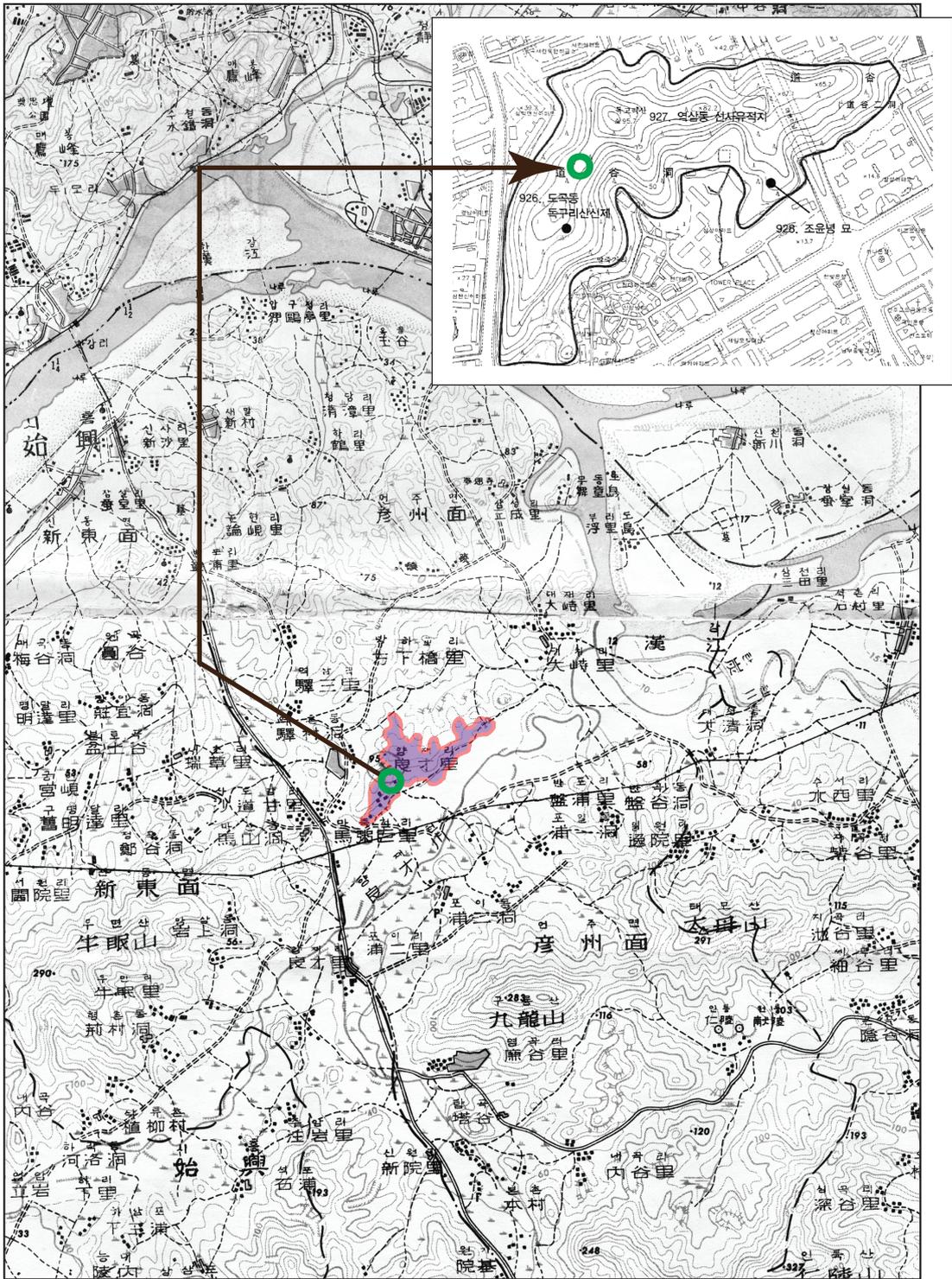
1. 유적의 위치

보고서(金良善·林炳泰 1968)에 기록된 당시 유적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역삼동 산21-1번지이다. 김정후(金正瑠: 당시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역삼동 55)씨가 소유한 표고 90m 내외의 야산(독고리산)으로 정상부는 해발 95.7m이고 두 개의 봉우리(동쪽 82.2m, 서쪽 86.1m)가 더 존재한다. 유적은 정상부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릉 능선상에 위치한다. 주민은 이 낮은 구릉을 매봉으로 불렀으며, 현재 매봉역은 이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지적 정보로 볼 때 당시 조사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언주면이었다가 서울특별시에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이다. 주변과의 지리 관계는 용산구 한남동 맞은편 신사리 한강 나루터에서 약 3km 남쪽에 위치하고, 유적의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유적 주변으로는 100m 내외의 구릉이 여러 곳으로 뻗어 있고, 남쪽 약 10km 지점에 청계산(544m), 동남쪽 2.3km 지점에 구룡산(283m), 서쪽으로 우면산(290m)이 바라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청계산과 우면산 사이로 흐르는 양재천을 끼고 뻗어 있는 구릉상에 조사지점이 위치한다. 그리고 역삼동, 말죽거리, 양재리 부락을 이웃하고 있는데 조선시대까지 양재역 소재지로 수원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해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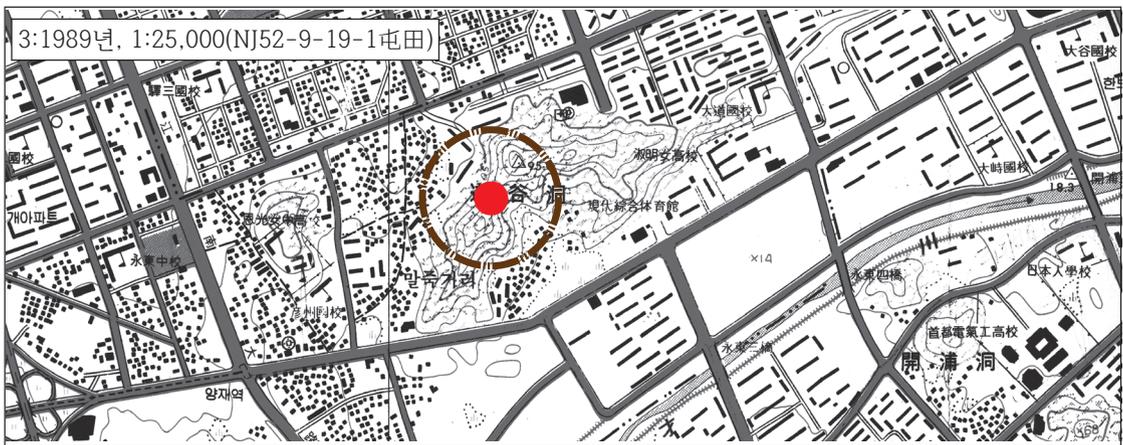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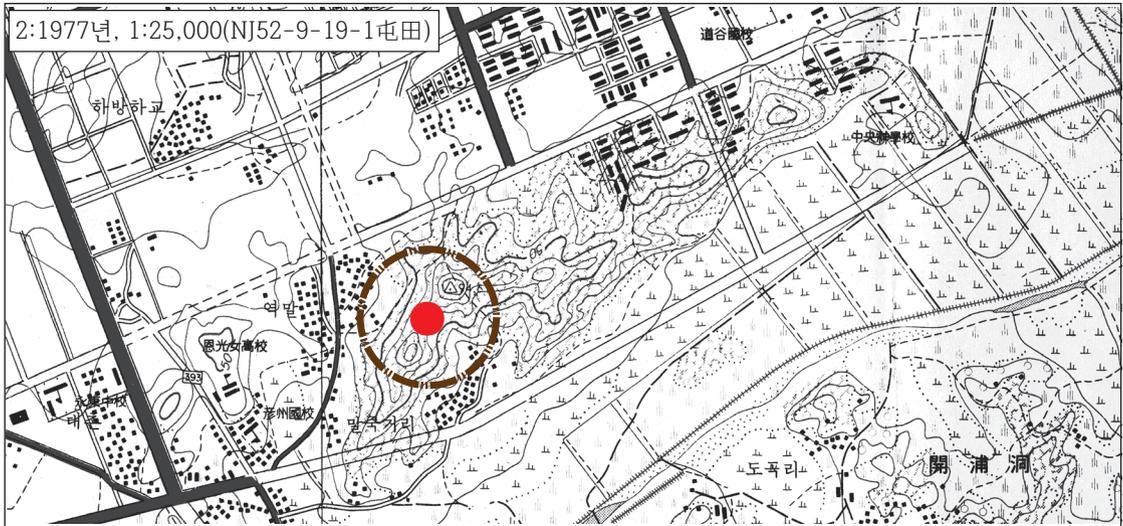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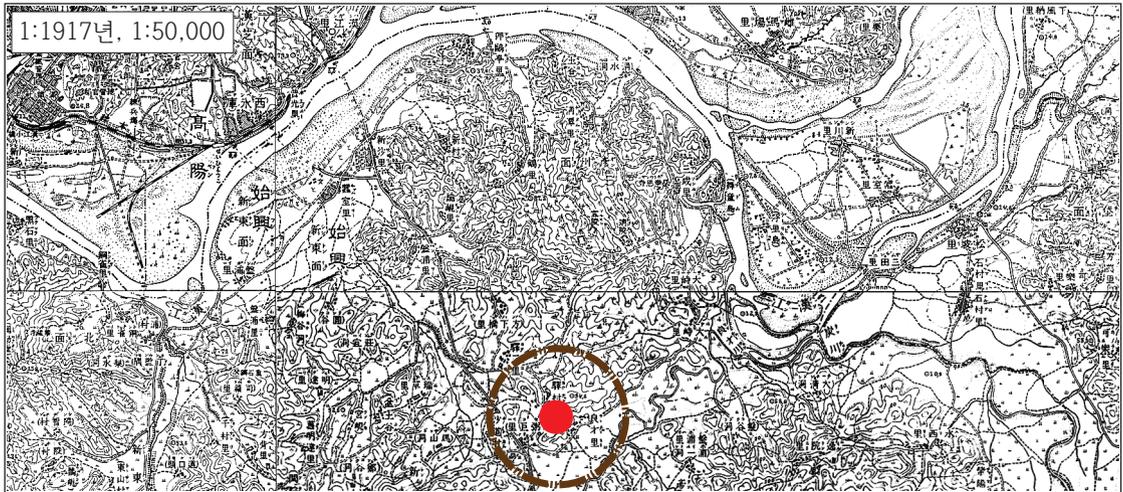
故 임병태 교수가 조사 당시 사용한 지도에 표기한 조사지점의 위치는 우봉산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길게 뻗은 구릉 중앙 부분에 위치한다(도면 1, 사진 1). 현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우면산과 분리되어 있지만 옛 지형도로 볼 때 우면산에서 뻗어 내린 가지능선임을 알 수 있다(도면 2-1). 우면산의 북동쪽 가지능선에 해당되는데 한강변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길게 연결되어 있고,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하고 있으며, 구릉의 남쪽으로 평행하게 양재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한강변이 곡류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양재천 남쪽으로는 험준한 구룡산이 둘러져 있어 자연적인 방어기능을 하고 있다.

조사 당시까지 이 유적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게 잔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시로의 편입이 늦어지면서 개발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경성 개발 기본 계획에도 이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는 강남 개발과 더불어 주변지역의 개발이 완료되어 옛 지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도면 2-2~2-3). 다행히 유적이 위치한 매봉은 녹지로 조성되어 아직까지 조사 당시의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 잔존한 매봉 주변으로 청동기시대 유물이 채집되고 있고,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현재도 다수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밀집하여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유적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봉의 동쪽 가지능선으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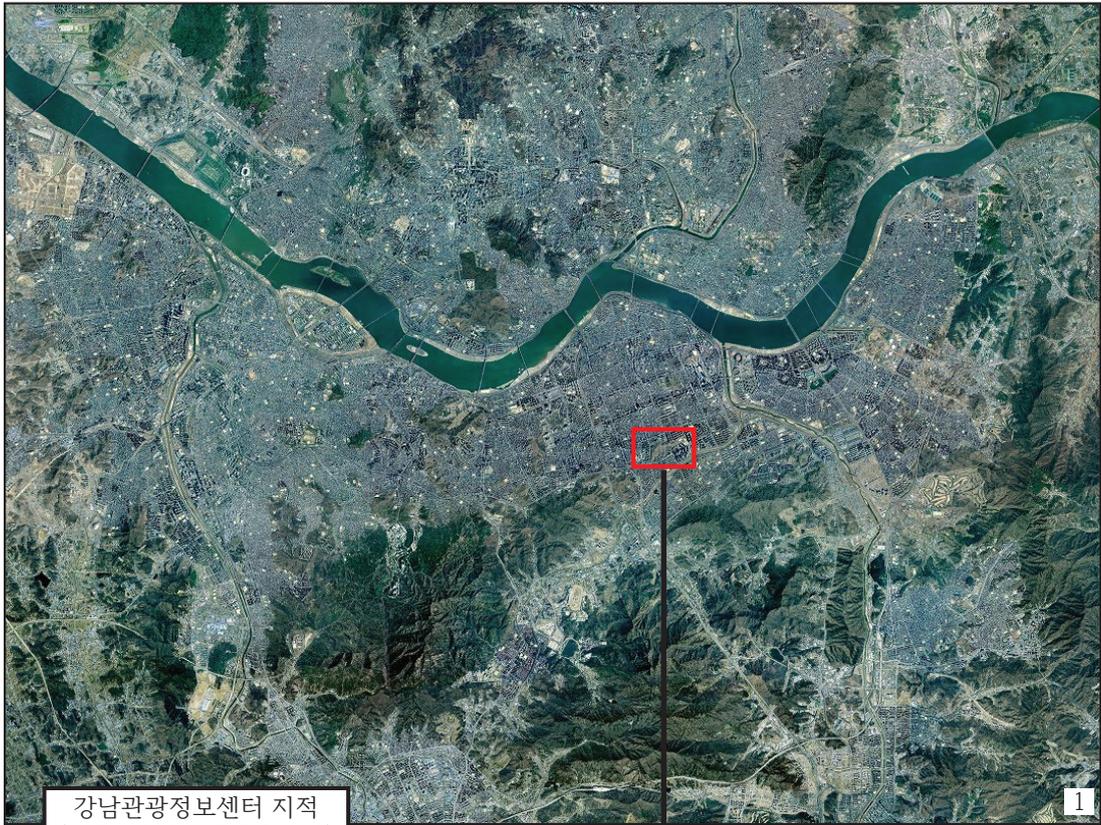
그런데 행정당국에 등록된 유적의 공식적인 위치는 기존 조사지역에서 많이 이격되어 있다(도면 3-1~3-3). 강남관광정보센터에서는 유적의 위치를 강남구 도곡로 220(도곡동 542-2번지)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 문화체육과는 유적의 표석 위치가 현재의 매봉역 1번 출구 앞에 설치되어 있다고 전한다. 같은 구의 행정조직에 따라 유적의 위치를 상이하게 안내하고 있을 만큼 유적에 대한 관심과 위치 정보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2014년 1월~2월 사이) 서울시청(문화재과)이 문화재 표석을 일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삼동 유적 표석을 이미 제거하였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결정 내용에 따라 서울시청이 강남구청에 표석 제거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조회하였고, 강남구청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표석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발표자가 서울시청에 문의한 결과 역삼동 표석을 공식적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강남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안내문 정도를 만들어 설치할 수는 있다고 한다.



<도면> 유적 위치도(조사 당시 임병태 교수가 사용한 도면)



<도면 2> 유적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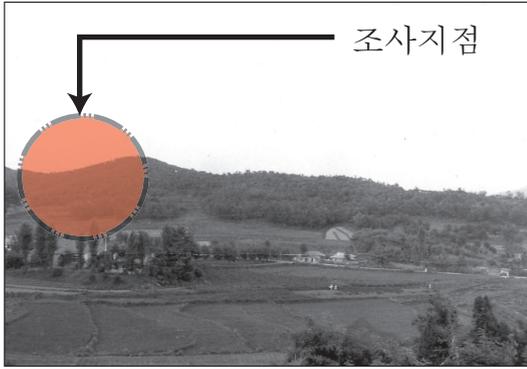


강남관광정보센터 지적
(도곡로220:도곡동542-2)



강남구청 지적
(매봉역1번출구)

<도면 3> 역삼동 유적 위치 항공사진(1) 및 행정기관 위치 정보(2)



<사진 1> 유적 전경(서쪽 도감리 구릉에서 촬영)

2. 조사 경과

역삼동 유적의 발굴조사 과정은 보고서 내용과 행정서류를 통해 당시의 정황을 복원할 수 있다. 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표조사(유적 징후 최초 발견) : 1966.05. 초순 토요일

송실대학 사학과 학생들과 1960년부터 실시해 오던 한강유역 지표조사 과정에서 6.25 전쟁 당시 사용한 군인 참호 속에서 무문토기편을 채집하면서 처음으로 청동기시대 유적의 징후를 발견하였다. 능선을 따라 주변 약 150평 정도가 넓은 평지를 형성하고 있어 대규모 청동기시대 취락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정밀지표조사 : 1966.05. 중순 토요일

민무늬토기편이 처음 발견된 지점에서 10m 서쪽 지점에 가로 1m, 세로 2m의 테스트 피트를 굴착하고 80cm 하강하자 주거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현장 보존 및 향후 정식 조사를 위하여 원상태로 복토하였다.

3) 발굴허가 신청 : 1966.07.01.(송대제422호→문교부장관)[문서 1-1~1-2]

- 발 굴 자 : 김양선(교수), 임병태(강사)
- 발굴기간 : 1966.07.25.~1966.07.30.(6일간)
- 발굴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역삼동 산21-1(임야) 10평 내외(학술발굴조사)
- 소요경비 : 30,000원(송실대학 자체 부담)[문서 2-1~2]
- 토지소유자 : 김정후(金正珠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역삼동 55)

4) 발조조사 신청서 보완 요청 : 1966.06.21.(문문화재1082,1-4538[72.5316])

- 발굴조사 신청에 대한 서류 보완(지번, 지목 누락) 요청

5) 지적공부요청(地籍公簿未復舊證明願) : 1966.06.29.(1966.06.30. 성동구청장)[문서 1-3]

6) 문화재관리국 발굴허가 : 1966.07.18.(문문화재1082,1-5213[72.5316])[문서 1-4]

7) 발굴조사 : 1966.08.22.~1966.08.29.(실조사일수 8일).

8)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 1967.04.03.(사학1-54.19-161)

9) 발굴조사 내용 공식 보고 : 1968.11.20.(『史學研究』 20輯 게재)

10) 발굴조사 보고서 최종 제출 : 1969.04.29.

3. 조사과정(조사일지)

조사과정은 발굴조사일지와 임병태 교수의 개보 육필 원고를 통해 복원할 수 있다. 발굴조사 허가를 요청한 조사기간과 실제 조사기간이 상이한 것은 당시 장마로 인하여 동작동-말죽거리간 교통이 두절되어 조사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사과정을 발굴조사일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문서 2-3~4).

1) 조사일지

① 1966년 8월 22일(월) 晴明

- 09:30 : 학교에서 출발
- 11:00 : 도착, Trench 설치
- 13:00 : 지표면 측량. 6·25 참호를 기준으로 이번 시굴 지면을 포함해서 Trench를 냈다. 유물로 인공 흔적이 있는 석기 2개가 출토되었다. 아직 유구가 드러나지는 않음
- 18:00 : 작업 완료
- 참가자
1학년 : 黃賢淑, 李敬姬, 李英姬, 崔信德
2학년 : 李聖鳳, 裴信根
3학년 : 鄭吉男, 劉勝吉, 朴尙和
4학년 : 金八成, 尹應洙

② 1966년 8월 23일(화) 晴雲

- 09:00 : 작업 개시
- 전일에 이어 삽질을 계속한 결과 처음 넣었던 Trench보다 유적이 확대됨을 알게 되어 유구를 따라 확장하



였다. 결과 남북으로 장방형의 길다란 집이 있음을 짐작케 하고 북쪽으로는 아직 끝이 나타나지 않았다. 석기(석착)가 출토되었고 A지점, B지점 토기가 출토되었다

- 16:00 : 작업 완료
- 참가자
 1학년 : 李英姬
 2학년 : 李聖鳳, 李海連, 安和京, 河昌一
 3학년 : 鄭吉男, 劉勝吉, 安信子
 4학년 : 金八成, 尹應洙
- 참관자(來訪) : 閔斗基, 崔永禧, 宋炳基, 申之鉉

③ 1966년 8월 24일(수) 雲, 一時雨

- 08:30 : 작업 시작
- 10:00~12:00 : 비가 와서 작업 중지
- 전일에 연속하여 발굴하면서 북쪽으로 Trench를 연장하였으나 아직 복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C지점 토기 및 석부 출토
- 17:00 : D지점 토기와 E지점 토기 출토
- 참가자
 1학년 : 曹賢淑, 李敬姬
 2학년 : 李聖鳳, 李海連, 河昌一
 3학년 : 鄭吉男, 劉勝吉, 朴尙和
 4학년 : 金八成, 尹應洙
- 참관자 : 金良善 교수 및洞里 사람 수십 명

④ 1966년 8월 25일(목) 雲, 雨

- 09:00 : 작업 개시(인부 1인)
- 전일에 이어 계속 작업. 북쪽으로 Trench를 연장. 기둥 자리가 발견되기 시작하여 이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 기둥이 불타서 숯이 되어 그대로 서 있는 것도 두 곳이나 발굴되었다. 砥石으로 생각되는 하천석과 자연석(토작대) 2개가 출토. 반월형석도와 함께 축이 출토(F). 오전 11시 경 비가 내려 잠시 작업 중지. 오후 계속 작업
- 참가자
 1학년 : 李英姬, 崔信德
 2학년 : 李聖鳳, 河昌一, 李海連, 裴信根, 金惠淑
 3학년 : 鄭吉男, 劉勝吉
 4학년 : 金八成, 尹應洙
- 참관자 : 彦州 지서 주임

⑤ 1966년 8월 26일(金) 雲

- 08:00 : 작업 개시. 인부 2인
- 계속 Trench 연장. 지난 저녁에 비가 내려 유구가 파괴되지 않았을까 염려하였으나 아침에 와 보니 별 탈 없었다. 계속 Trench를 북쪽으로 연장하면서 작업. 오후에 복단의 끝지점에 끝이남. 오늘로서 유구 규모는 드러났다. 복단에서 3m 지점에 6·25 때의 참호로서 지층이 약간 교란되어 있었다. 복단 구석에서 토기 2점이 출토. 그 중 하나는 대형. 이형석기(석부) 1점 출토
- 참가자
1학년 : 黃賢淑, 李英姬, 崔信德, 李敬姬
2학년 : 李聖鳳, 河昌一, 李海連, 裴信根, 安和京, 金惠淑
3학년 : 鄭吉男, 劉勝吉, 朴尙和
4학년 : 金八成, 尹應洙
- 참관자 : 金良善, 金成植, 崔永禧, 禹柄熙, 姜萬吉, 地主 金正珩
한국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 취재단
- 18:30 : 작업 완료

⑥ 1966년 8월 27일(土) 晴

- 08:30 : 작업 개시
- 어제로서 주거지의 규모는 완전히 드러나고 오늘로서 발굴은 끝이 났다. 현재까지도 기둥구멍이 있을 곳이 발견이 되지 않아 의심이 많다. 교란된 복단으로부터 3m 지점에서 석축 출토(그러나 삽에 뜨여 나간 것이므로 층위가 분명치 못함). 석축 B 출토
- 참관자 : 金良善, 金廷鶴, 洪伯龍, 孫寶基, 鄭明鎬

⑦ 1966년 8월 28일(日) 晴

- 08:00 : 작업 시작.
- 어제에 이어 측량 완료. 유물 철수를 계획하다가 내일로 연기
- 참관자 : 鄭明鎬, 金貞培

⑧ 1966년 8월 29일(月)

- 08:30 : 철수 작업
- 13:00 : 철수
- 참가자 : 황동규, 배상현, 鄭吉男, 李聖鳳

2) 임병태 교수 육필 원고

“최초 문교부에 제출한 발굴일자는 7월 25일 ~ 31일까지였으나 이 때 장마로 인하여 동작동-말죽거리 간 교통이 두절되고 장마가 계속되어 부득이 8월 22일로 연기하게 되었다”



“8월 22일 9시 대원들과 함께 준비한 발굴용구를 챙겨 학교를 떠난 것이 9시, 10시 30분경에야 말죽거리에 도착하였다. 도착한 곳에 짐을 풀자 흐르는 땀을 소매로 훔치며 곧바로 현장으로 올라갔는데 벌써 11시가 되었다. 우선 분담하여 일부 대원은 Trench를 설치하고 일부 대원은 측량을 시작하여 오후 2시에야 준비작업을 마치고 크림빵을 나누어 점심을 들게 되었다. 이 날 오후부터 발굴에 임하여 가로 3m, 세로 7m의 동북-서남으로 뻗친 장방형의 트렌치를 넣었다”

“제2일, 오후 시굴조사시 발견되었던 토기가 묻힌 재와 숯으로 깔린 유물층이 드러나면서 동측으로 윤곽이 나타나 유적의 형태가 지금까지 넣은 트렌치와는 각도를 약간 달리하여 장축이 남-북으로 각각 좀 더 가까워진 방형의 주거지로서 그 길이가 연장됨을 알게 되었다”

“제3일, 전일 잡은 유적의 윤곽을 참작하여 트렌치의 장축방향을 남북으로 약간 바꾸고 서편과 북으로 연장하여 발굴한 결과 이 날 서편으로 연장한 곳은 주거지의 벽이 나타남으로써 약 3m의 이 주거지의 폭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길이는 더 연장됨을 알게 되었다. 이후 2차에 걸쳐 북쪽으로 향해 주거지의 길이를 따라 트렌치를 연장 발굴한 결과 폭 3m, 길이 17m의 장방형의 주거지가 드러났다. 그러면 주거형태에 대하여 약속하겠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폭 3m, 길이 17m의 장방형으로 북단은 160cm 남단은 70cm 정도 지하에서 주거지 바닥이 드러났다. 바닥은 대개 평평하며 숯과 재가 거의 전면에서 깔려 있었다. 그리고 유물은 대개 이 바닥에서 출토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바닥에 놓여 있지는 않고 어떤 것은 약간 부식토가 쌓인 위에서 나오기도 하였으나 유물 중 이 유적 주거지와 관계없는, 즉 층위를 달리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또 장방형의 4면 중 남쪽 일면을 제외한 3면에서 벽에 바짝 붙어 1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직경 5cm 내외의 둥근 기둥구멍이 나타났고 그 중 3개는 기둥이 불탄채 그대로 서 있었다. 이것은 참나무들이었고 넘어진 채 숯이 되어 있었다. 나중 측량할 때 벽면의 지층을 조사하였더니 부식토층을 지나 생토층으로 된 지층은 유적 바닥에서 대개 80cm 내외의 높이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주거지는 최초 80cm 내외의 길이로 땅을 파고 1m 내외의 간격을 띄워 참나무 등으로 된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그 위에 지금의 지붕형태와 비슷한 지붕을 덮었던 것 같다. 이 당시의 집을 지금까지 발견된 예에 비교하면 직경 7-8m 내외의 원형, 타원형으로 땅을 파고 거기에 기둥을 비스듬히 세워 기둥의 꼭지가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지붕을 덮은 것으로 8각 텐트를 친 것 같은 움집이었다. 이 외에 별로 이렇다 할 유적의 발견이 없어 방형으로 된 지상의 건물도 있었을 것이란 추측으로 만족하였다. 그러던 것이 본 유적의 발굴로 기둥을 똑바로 세우고 장방형의 대가옥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유물은 석기와 토기들인데 석기로서는 마제 석부 3개와 유경마제석촉 1개, 변형 마제석촉 2개, 반월형석도 1개, 돌자귀 2개, 곡물을 갈아 먹던 소형 맷돌 2개, 숯돌 5개, 무엇에 사용되었는지 열른 짐작이 가지 않는 8면이 잘 마연된 이형석기와 둥근돌을 마연한 이형석기가 출토하였고 석기 제작 재료로 생각되는 석편들이 두 곳에 놓여 있었다. 또 해머로 사용되었던 듯한 둥근돌이 2개 나왔다. 토기들은 모두 무문토기로서 밑바닥이 편편한 중형 단지들이었고 입술은 바로 뾰은 것과 밖으로 벌어진 것이 보통이었다. 모두 9점이 깨어진 채 묻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대형 단지도 있었다. 토기는 아직 복원을 못하여 자세한 설명은 후일로 미룬다. 석부로 상대편을 찍을 수 있는 공격 무기이기도하지만 대개 흙을 뒤지는 농경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같고, 반월형석도는 곡식 이삭을 따는데 사용하던 것이다. 그리고 석촉은 사냥에 쓰던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이 주거지에 살던 사람들은 농경과 수렵을 생업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주거지의 연대측정은 출토한 숯을 외국에 보내어 Radiocarbon Dating(방사성탄소에 의한 연대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나 대개 유물로서 추측컨대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 어간에 생존하던 사람들의 유적으로 보여진다. 끝으로 학교 당국의 후원과 사학과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주관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며, 또한 발굴 중 참관하여 지도 격려하여 주신 학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금치 못하겠다. 특별히 허리와 무릎에 반창고를 부쳐야 했던 무더위의 고된 작업과 먼지투성이의 담요를 뒤집어 쓴 계속된 野業에도 용케 견디어 낸 남녀 대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이다. 이상 발굴시종과 유적, 유물의 개략을 발굴기로 제시하고 어설프게 약술함은 우선 궁금중이나 풀어주고자 한忼에서 일 뿐 자세한 연구보고서는 후일을 기약하는 바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사진 2).

- ① 1966.08.22. : 조사착수, 조사지역 측량, 시굴 트렌치 설치
- ② 1966.08.23. : 주거지 윤곽선 파악, 시굴 트렌치 확장
- ③ 1966.08.24. : 주거지 윤곽선 파악을 위하여 시굴 트렌치 2차 확장
- ④ 1966.08.25. : 주거지 내부조사
- ⑤ 1966.08.26. : 주거지 내부조사 및 윤곽선 최종 확인
- ⑥ 1966.08.27. : 주거지 내부조사 완료
- ⑦ 1966.08.28. : 주거지 조사 완료, 주거지 도면(평면도, 단면도) 제작
- ⑧ 1966.08.29. : 조사 완료, 철수



▲ 조사단 및 지표조사 채집 토기류



▲ 조사 후 전경 및 유물 출토상태



▲ 조사과정

<사진 2> 조사단 및 조사과정

Ⅲ. 조사결과

1. 유구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다. 주거지가 확인된 곳은 구릉 정상부 능선을 따라 펼쳐진 넓은 평탄대지이다. 청동기시대 전기의 주거지들이 주로 구릉 정상부를 따라 축조되었던 특징과 일치한다. 지금은 도로 개설로 우면산과 단절된 단독 구릉처럼 보이나 고지도 등을 참고로 할 때 우면산에서 길게 뻗어내린 구릉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주변에서 다량의 공열토기편이 채집되는 점(서울역사박물관 2005)에서 구릉 전체에 청동기시대 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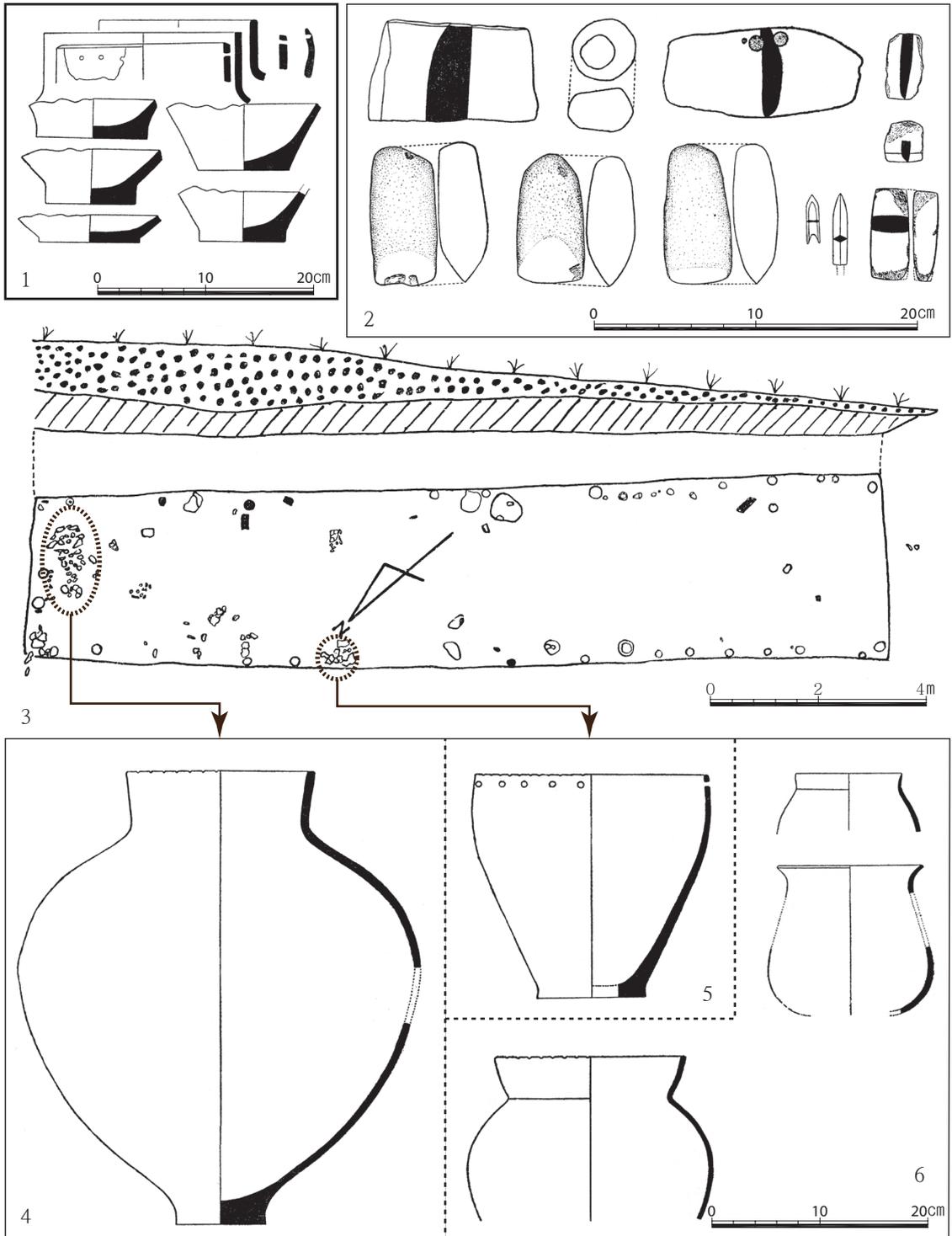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보고서에 기록된 주거지의 규모는 길이 16m, 폭 3m로 북동-남서 방향을 장축으로 한 세장방형 주거지이다(도면 4-3, 사진 3). 가장 깊은 북동쪽은 깊이가 약 1m에 달한다. 남서쪽은 경사면을 이루고, 주거지 밖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점에서 장축방향이 좀 더 세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면적을 산출하면 최소 12평(약 48㎡) 정도로 약 10명(최대 16명)의 가족 구성원이 동시 주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과정에서 주거지 전면에 불에 탄 흔적(목탄)이 발견되는 점에서 화재로 주거지가 폐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이 소략하여 실화재 보다는 의도적인 폐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시설은 기둥구멍(주공)과 저장구멍이(저장공)가 발견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 특별한 노지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전기 세장방형 주거지 조사의 예로 볼 때 내부에 살짝 땅을 파고 불을 뚫은 노지 여러 개가 중앙 축선을 따라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청동기시대 세장방형 주거지 복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겨울철 2개의 노지를 사용할 때 실내 온도가 25도까지 상승하여 체감상 약간 더운 느낌이 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오규진·허의행 2006). 결국 길이 10m 정도의 주거지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노지의 숫자가 많은 것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불탄 목탄을 바탕으로 가구 구조와 지붕 구조를 복원해 보면 맞배지붕의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거지 내부 공간은 기능과 사용 용도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주거지 북동쪽은 유물이 밀집하여 출토되고 있어 저장공간으로 추정된다. 북동쪽 저장공간과 중앙까지의 바닥에서 다수의 석기류가 출토되고 있어 석기 제작 및 보관을 위한 공방으로 추정된다.

2. 유물

주거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소위 “역삼동유형”을 구성하는 토기 및 석기류이다(도면 7-1,2,4,5,6). 토기류는 크게 3가지 종류가 발견된다. 첫 번째는 구연부가 넓고, 저부로 가면서 깔데기 모양이 되는 발형토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구순에 짧은 빗금을 긋고, 구순 하단에 일정한 간격으로 투공(반투공 포함)을 뚫은 구순각목공렬토기가 결합된다. 두 번째는 직립하는 목(경부)을 가졌으며, 동체부가 매우 풍만하게 불러오다가 다시 저부로 가면서 급격하게 좁아들어 좁은 바닥을 이루는 형태가 있다. 여기에는 입술면에만 짧은 빗금을 그은 호형토기와 적색마연토기류가 결합된다.

다음으로 석기류 역시 역삼동유형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석기류는 단면이 타원형인 세장한 형태의 강돌 양면을 갈아서 날을 새운 양인석부 3점, 석착 2점, 유경식마제석촉 1점, 무경식마제석촉 2점, 반월형석도 1점, 여러 점의 갈돌·갈판 등이 발견되었다.



<도면 4> 역삼동 주거지(1/120) 및 출토유물(토기류 S=1/6, 석기류 S=1/4)



<사진 3> 역삼동 주거지 출토 유물



IV. 맺음말

지금까지 1966년에 조사된 역삼동 유적에 대한 조사 내용과 그 의의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역삼동 주거지 발굴은 숭실대학교박물관 1호 발굴로서, 한강변 기초 조사(자체 지표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어려운 학교 형편에도 조사비용을 부담하여 고고학사에 큰 이정표를 남겼다. 이것은 고고학적 학술조사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숭실대학교 사학과와 故 매산 김양선 교수와 故 임병태 교수의 열정이 맺은 결실이다. 비록 한 동의 주거지를 조사하는데 그쳤지만 당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양상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청동기시대 전기를 개념화한 “역삼동유형” 개념을 탄생시킨 획기적인 발굴이었다. 또한 체계적인 고고학 조사방법론을 적용하고, 보고서 체제를 완성한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역삼동유형은 세장방향의 주거지, 공렬토기, 석기 조합상이 복합되어 개념화되었으며 현재도 청동기시대 전기를 유형화하는 개념 틀로서 자리잡고 있다.

서울 역삼동 주거지는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어지는 문화변동의 양상을 밝혀낼 수 있는 유구, 유물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역삼동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세장방향 주거지로 특징된다. 최근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넓게 발견되고 있다. 주거지의 외곽으로는 등간격의 기둥구멍이 존재하고, 주거지 단벽 한쪽은 저장시설을 두었다. 그리고 장축선 중앙을 따라 등간격의 노지가 배치되어 있다. 역삼동식토기와 주거지의 형태, 석기조합상(합인석부, 이단경식석촉, 삼각만입촉)을 조합하여 “역삼동유형”을 이룬다.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역삼동유형을 구성하는 내용에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고는 있지만 1966년 조사 당시의 요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최근까지 논의된 “역삼동유형”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삼동 주거지는 고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유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역삼동 유적을 대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학사적 의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에서 유적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유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석을 제거하는 행위를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최근 매봉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러 등산로가 무질서하게 개설되면서 대규모 청동기시대 주거지들이 지상에 노출되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매봉에 대한 정비·개발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1> 역삼동유형 개념의 시기별 변천 양상

논문	명칭		개념 및 유물상	
이백규 1986	A-I군	A-II군	A-I군 : 동북·서북지역의 무문토기문화가 남하하여 서로 접촉이 없던 시기	무문토기, 공렬토기, 출문토기
			A-II군 : 동북·서북지역의 무문토기문화가 남하하여 서로 접촉이 있던 시기	공렬토기·구순각목토기·적색마연토기 공반, 장방형석도 초출
이청규 1988	역삼동식토기군 역삼동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렬 및 구순각목 장식의 심발형토기 - 구순각목, 무문의 호형토기 조합 - 호형토기에 공열 없음 - 적색마연토기(소형호, 원통형급의 고배형토기) 	
이형원 2002 2009	역삼동·흔암리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서북 양 지역 관련 - 토광형노지, 주공식 중심 - 역삼동식토기, 흔암리식토기 일괄 - 이단병식석검 등 마제석기 - 역삼동식토기, 적색마연토기 사용 집단도 서북한지역의 석기상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북 계열로만 볼 수 없으며, 주거구조, 석기상이 동일한 점, 전국적인 유적 분포지역의 일치 등 문화양상이 동일함 	
황은순 2003	역삼동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삼동유형의 3가지 요소 정의 토기 : 공렬토기 석기 :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일단경촉, 양인석부(단면 타원형) 주거지 : 세장방형·장방형, 저장공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내부 시설 거의 없음. 벽주공, 무시설식노지 	
이진민 2003	역삼동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삼동식 주거지 : 세장방형 내지 장방형의 평면형태에 주공, 토광식 또는 무시설식의 노지를 갖춘 주거지 - 역삼동식 토기:구연에 공렬이 돌아가는 심발형 토기 	
백승화 2007	역삼동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진민, 황은순의 의견에 동의 - 세장방형의 주거지에 내부시설에는 무시설식 노지와 주공식 주혈 - 순수 공열토기 - 삼각만입, 이단경식촉, 반월형석도, 혈구마제석검 등 	
송만영 2013	역삼동·흔암리유형 (백석동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구릉 정상과 능선부(서울, 경기, 인천) - 능선과 평행하며 토광형 무시설식 노지를 쓰고 내부에 저장구멍이 있음 - 단축폭이 좁은 장방형 주거지, 토광형 노지 설치→장축 길이 감소, 가축 구성원 증가에 따라 가축 증축 - 이중구연토기, 공렬토기 공반 →흔암리식토기→퇴화된 흔암리식토기 	



| 참고문헌 |

- 高麗文化財研究院, 2008, 『平澤 素沙洞 遺蹟』.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
- , 2004, 『한국고고학전문사전-청동기시대편』.
- 金良善·林炳泰, 1968, 「驛三洞住居址 發掘報告」, 『史學研究』 20, 史學硏究會.
- 김한식, 2006,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 5-1.
- 백승화, 2007, 「한국 청동기시대 중부지역의 전기 무문토기에 대한 문화유형 연구 -공렬토기와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역사박물관, 200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
- 송만영, 2013, 『중부지방 취락고고학 연구』, 서경문화사.
- 오규진·허의행,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 복원 및 실험」, 『야외고고학』 1,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李白圭, 1974, 「京畿道 無文土器·磨製石器」, 『考古學』 3, 韓國考古學會.
- , 1986, 「漢江流域 前半期 민무늬토기의 編年에 대하여」, 『嶺南考古學』 2, 嶺南考古學會.
- 이진민, 2003, 「中部地域 無文土器時代 前·中期 文化 硏究 -驛三洞/可樂洞 類型과 松菊理 類型 간 關係에 注目 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清圭, 1988, 「嶺南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1, 한국상고사학회.
- 李亨源, 2002, 「韓國 靑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硏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亨源, 2009, 「韓國 靑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은순, 2003, 「韓半島 中部地域 無文土器文化 編年 硏究 -驛三洞·欣岩里類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 심 대 학

송대지 422호
수 신. 문고부 함급
제 목. 발굴허가 신청

본교 박물관에서 아미와같이 전시시때 유적은 발굴토마 하오니
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지
지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역삼동 산 21-1
지점. 입석
지적. 10평내의
소유자주소. 성동구 역삼동 55
실태. 집 점 무
- 발굴자
김 삼 선(교수), 임 지 립 매 (강사)
- 발굴기간
착수 1966. 7. 25
종료 1966. 7. 30
- 집비
소요예산. 3만원
부담자. 송심대학장

1



地籍公案未復旧證明書

主地所在地址地籍地目地種 林野台帳所有者備考
 狀元里驛三洞山2 林野 公案未復旧證明書
 上項林野之地籍公案이 未復旧證明서 주시용기 領
 하나이다.
 1966年 6月 29日
 1號 特別永登浦區 黑石洞 68-3
 原人 林炳堯
 城東區長 費下

의와 같이 증명함
 서기 1966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이장득

3

증산, 수출, 전설

문 고 부

문고작성 1082,1-1 (72,5316) 1966. 7. 15
 수 신 송심대학장
 제 목 선사시대 유적지 발굴허가

- 송대지 422호(66. 7. 1)의 관련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역삼동 산21-1 선사시대 유적지 발굴조사는 국계획대로 허가하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기 바람.
 - 가. 본건 발굴조사가 소요되는 길이 일체는 국가가 부담할것.
 - 나. 발굴작업중에는 작업장소에 허가 사람을 게시할것.
 - 다. 발굴을 완료하였을 때는 문곽제보도넵 제4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하고 1년내에 학술보고서를 제출할 것.
 - 라. 발굴 조사시에 출토되는 유물일체는 문곽제보도넵 제45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처리될것임. "금"

유청부, 허가서 1부

문 고 부 장 관

합세로 자립 경제

13 ~ 1

4

<문서 1> 역삼동 유적 발굴조사 행정서류

